

빅데이터 기반의 군산시 경제 분석 보고

- 2020년 2/4분기 -

2020. 8.

세종경영자문(주)

||| 목 차 |||

1장. GRDP 경제성장 분석

1. 분석결과 요약	03
2. GRDP 종합 추이	04
3. 민간지출 추이	06
4. 정부지출 추이	11
5. 투자지출 추이	14
6. 무역수지 추이	15

2장. 정책부문별 현황 및 시사점

1. 일자리 부문	19
2. 산업혁신 부문	23
3. 소상공인 활성화 부문	28
4. 관광 활성화 부문	32

3장. 참조자료:빅데이터 경제 분석

1. 분석방법: GRDP 기초개념 및 활용	36
2. 연구목표	39
3. 추정방법	39
4. 기존자료와의 비교검토	41
5. 소상공인업종 분류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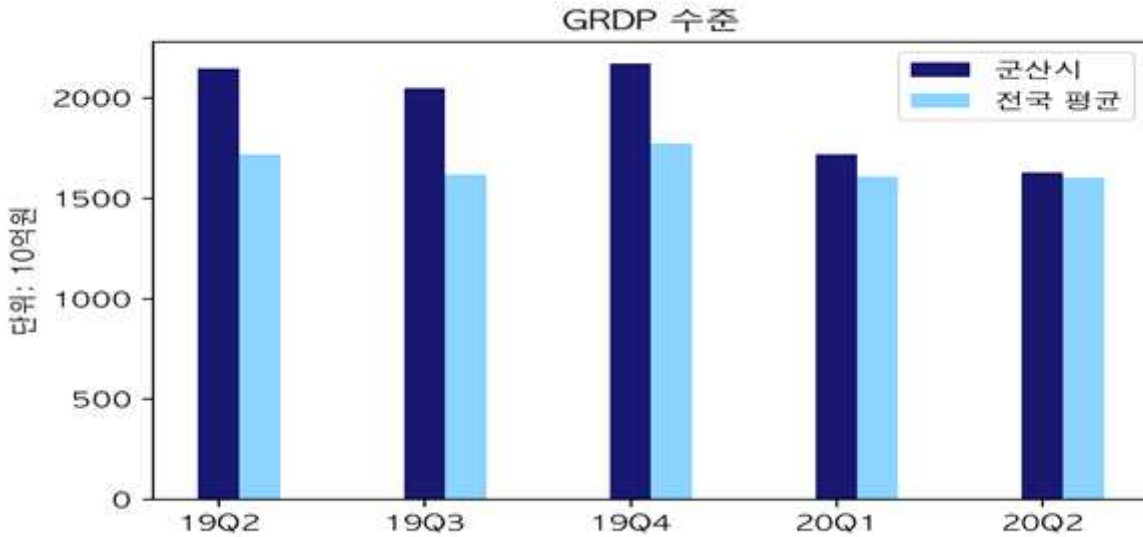
1. 분석결과 요약

□ 결과 종합

- 지난 1년간 전국 평균을 상회하던 군산시의 GRDP는 2020년 2분기에 들어서며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 군산시 GRDP는 2019년 2분기 2.14조, 이후 2.49조, 2.17조, 1.71조를 기록하여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 1.62조를 기록함
 - 같은 기간 전국 시군구 평균 GRDP는 1.71조, 1.61조, 1.77조, 1.60조, 1.61조를 기록함
 - 동 기간 군산시 GRDP는 총 229개 시군구 중 2019년 2분기 45위, 2019 3분기 43위, 2019년 4분기 43위, 2020년 1분기 50위, 2분기 58위를 기록함
- 2020년 2분기 경제성장 하락의 주된 요인은 전 분기에 이어 민간투자자와 무역수지의 급격한 감소에 있으며, 이를 내수소비와 재정정책이 방어하며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성장 규모를 유지하였음
 - 군산시 2분기 민간투자 비중은 지난 1년간 평균 80% 수준에서 10% 정도 하락하였으며 2020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냄
 - 지난 1년간 분기별로 평균 1,000억 원 이상이던 무역수지 역시 2분기에 100억 원 미만으로 급감하며 하락세를 나타냄
 - 반면, 정부지출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하며 지역의 민간 소비지출을 견인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전체 경제성장 방어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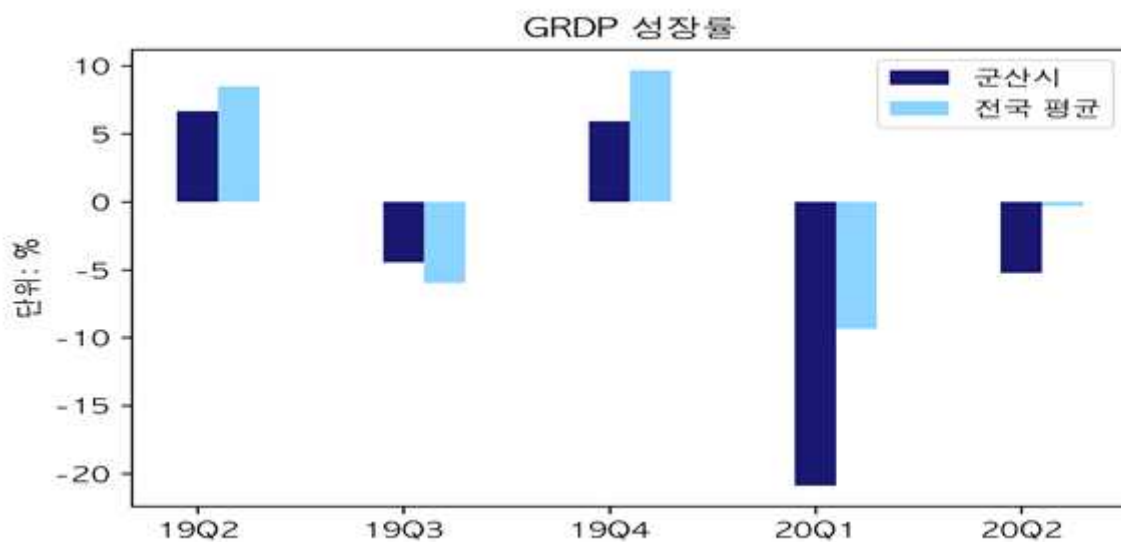
2. GRDP 종합 추이

□ 총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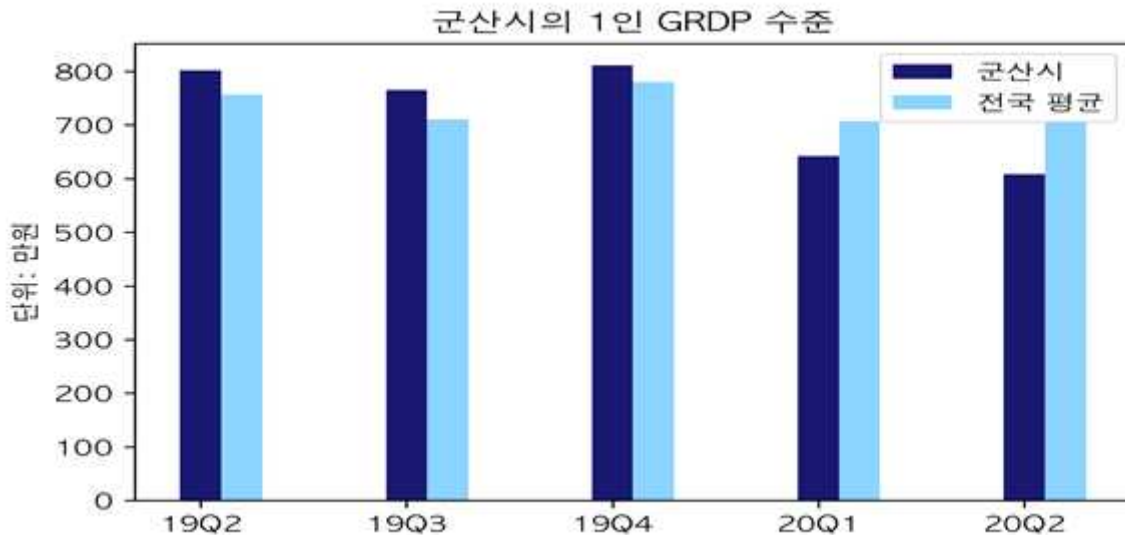
- 군산의 분기별 GRDP는 전반적으로 전국 시군구 평균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해 왔으나, 2분기 들어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인 GRDP 수준은 2019년 4분기에 잠시 상승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성장률



- 2020년 2분기 군산시 평균 분기 GRDP 성장률은 -5.25%를 나타냄
- 해당 분기 전국 평균 GRDP 성장률은 -0.3%로 군산시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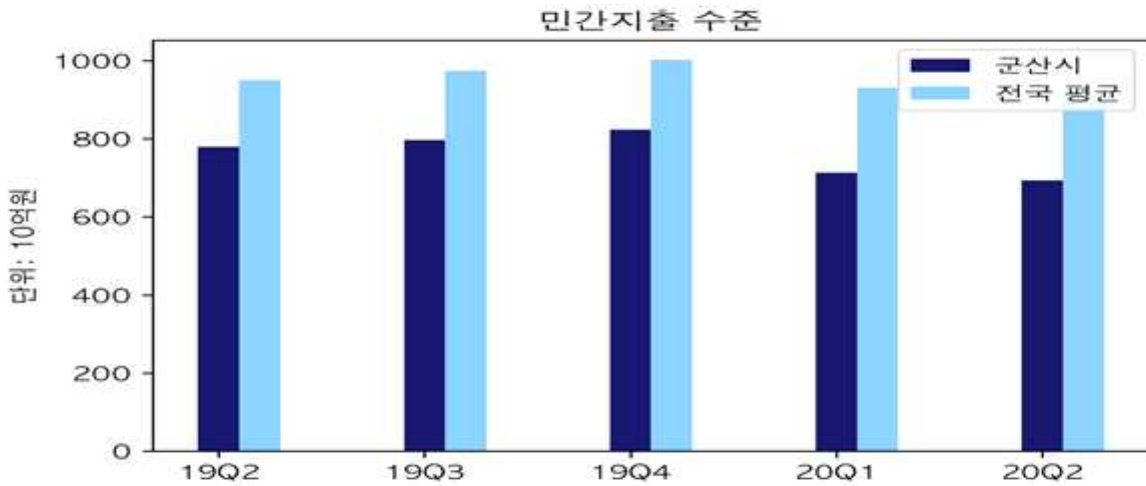
○ 1인당 GRDP 수준



- 2020년 2분기 군산시의 분기별 1인당 GRDP는 6,080,145원 수준이며 전국 평균 1인당 GRDP는 7,047,001원으로 전국 평균대비 약 97만원이 적게 나타남
- 군산시의 분기별 1인당 GRDP는 2019년 4분기에 잠시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20년에 들어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2020년 1분기부터 수출악화와 가계수입이 줄어들면서 정부 지출과 기업 투자 지출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불확실성, 코로나의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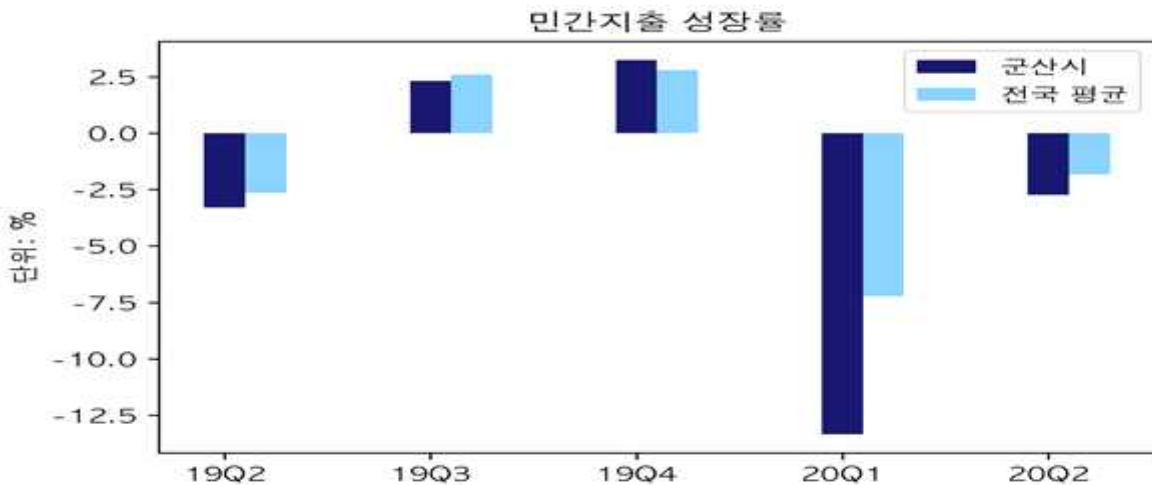
3. 민간지출 추이 (군산시, 전국 평균 비교 / 월, 분기)

○ 총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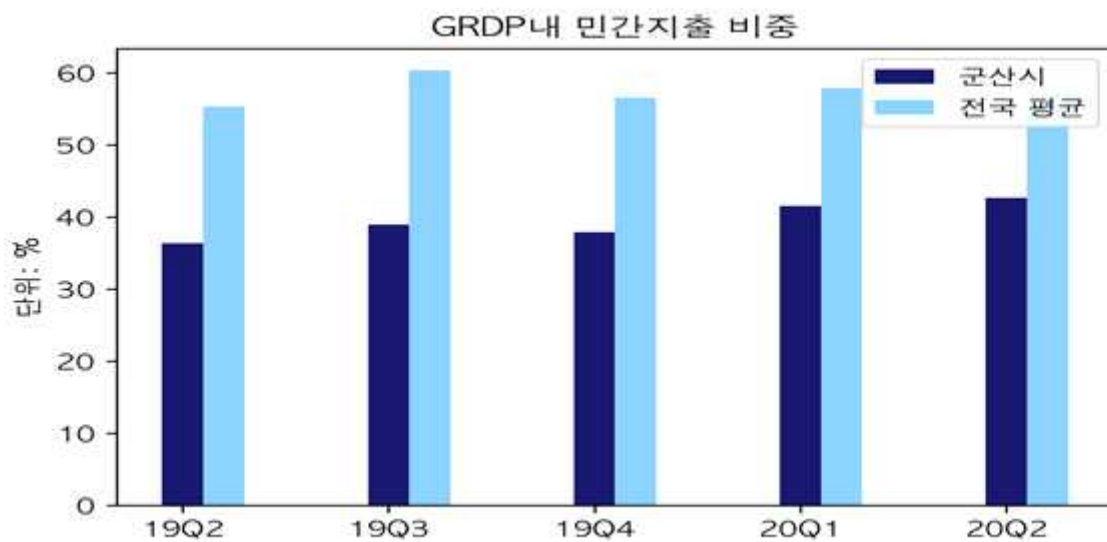
- 군산시의 2020년 2분기 민간지출 총액은 6,938억 원으로 해당분기 전국 평균 민간지출 총액 9,127억원에 비해 2,190억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군산시의 전년 동기 민간지출 총액은 7,792억원으로, 2020년 2분기 민간지출 총액 대비 약 854억원이 감소함
- 군산시의 분기별 민간지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나타남

○ 성장률



- 2020년 2분기 군산시 평균 분기 민간지출 성장률은 -2.73%로 해당 분기 전국 평균 민간지출 성장률 -1.84% 대비 약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민간지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0%로 2020년 2분기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동기 대비 1.50%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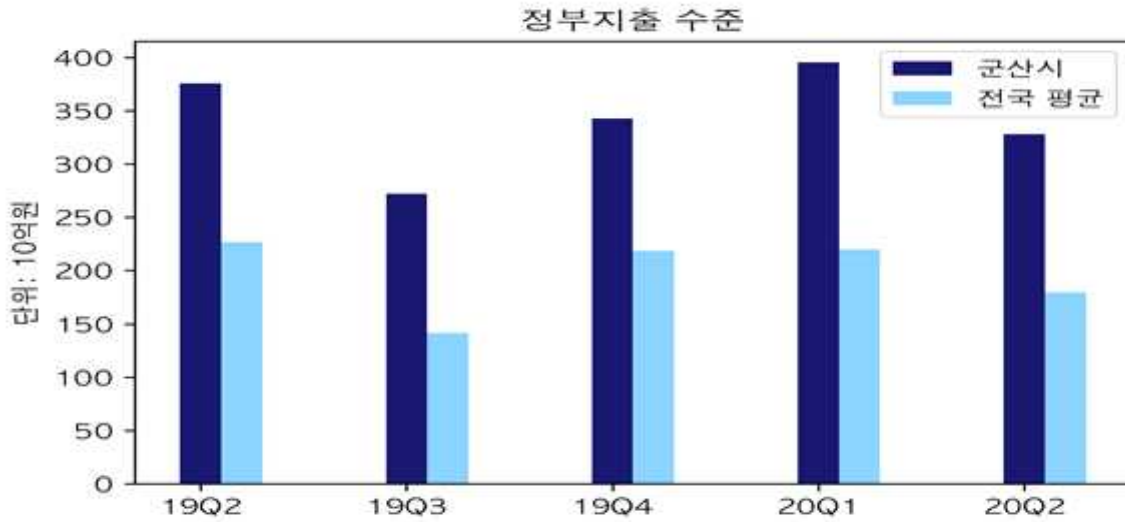
○ GRDP 내 민간지출 비중 추이



- 민간지출 비중은 총 GRDP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9년 4분기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0년 1분기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역 내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민간투자과 무역수지 중심의 경제 기여 비중이 축소되고, 민간지출 비중이 증대되는 경제체질 전환의 과정의 일환으로 분석되지만 여전히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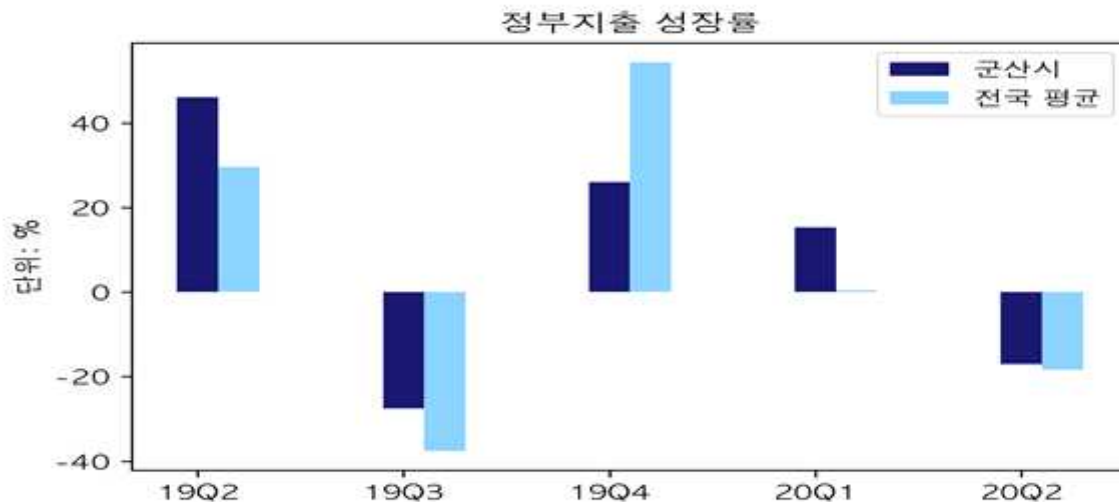
4. 정부지출 추이 (군산시, 전국 평균 비교 / 월, 분기)

○ 총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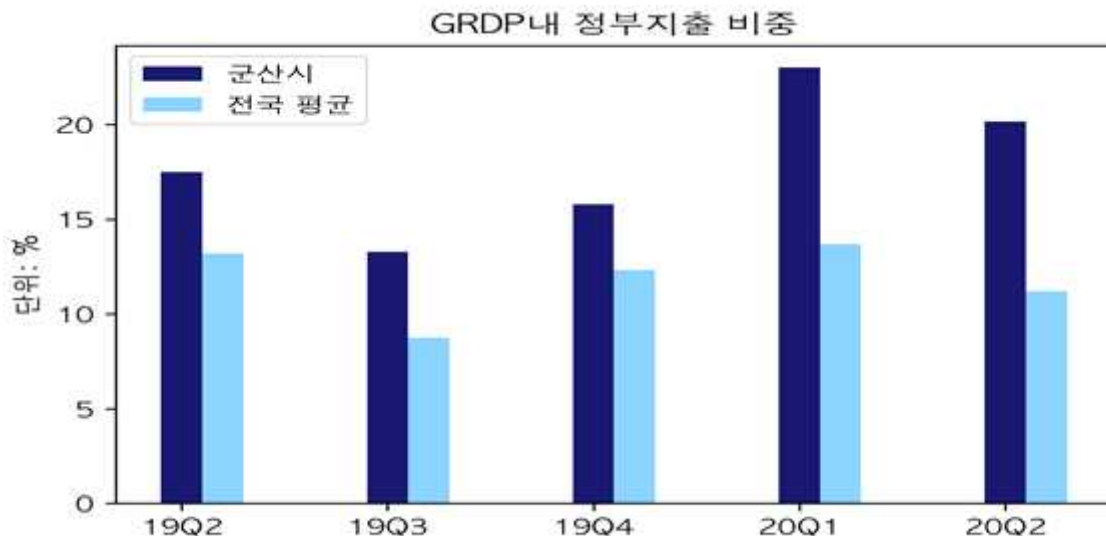
- 군산시의 2020년 2분기 정부지출 총액은 3,280억원으로 해당 분기 전국 평균 정부지출 총액 1,795억원보다 1,485억원이 높게 나타남
- 전년 동기 정부지출 총액을 비교해보면 전년 총액은 3,755억원으로, 2020년 2분기에 정부지출 총액이 전년 대비 약 475억 감소함
- 군산시 분기별 정부지출은 2019년 3분기를 기점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0년 2분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하락세를 나타냄

○ 성장률



- 2020년 2분기 평균 분기 성장률은 -17.03%로 측면에서는 1분기대비 급격한 하락세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18.33%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분기의 급격한 하락세는 전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총액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군산시의 전년 동기 정부지출 성장률 46.13%와 대비해보면 2분기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63.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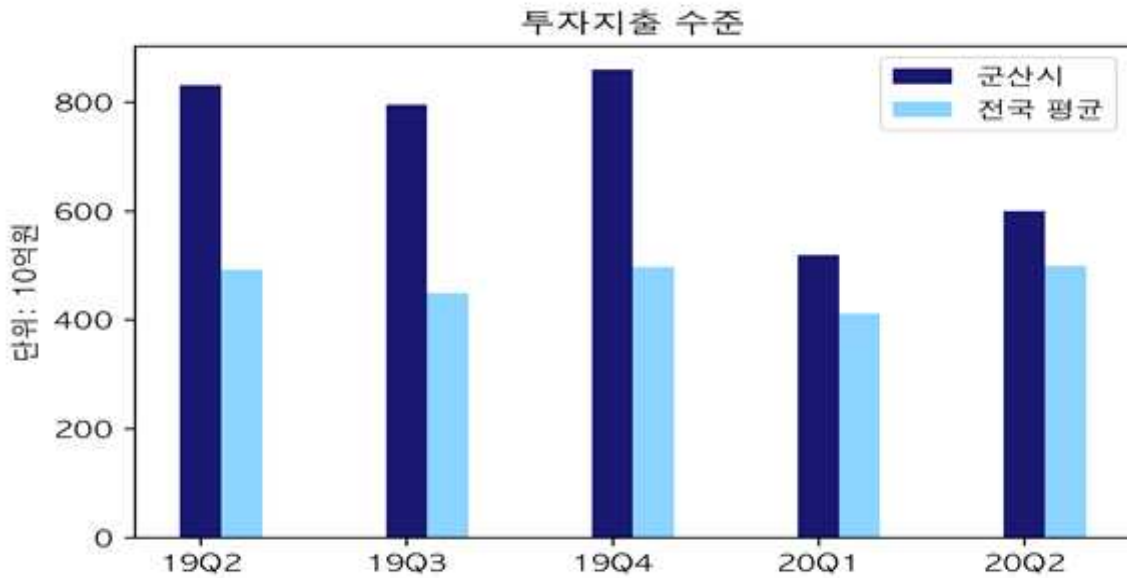
○ GRDP 내 정부지출 비중 추이



- 지방정부지출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군산시의 지방정부지출은 절대수준에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냄
- 분기별 차트를 보면 군산시가 19년 3분기부터 20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분기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2020년 1분부터 전국평균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는 군산시 경제구조가 기존의 산업지출 중심에서 정부지출을 통한 민간지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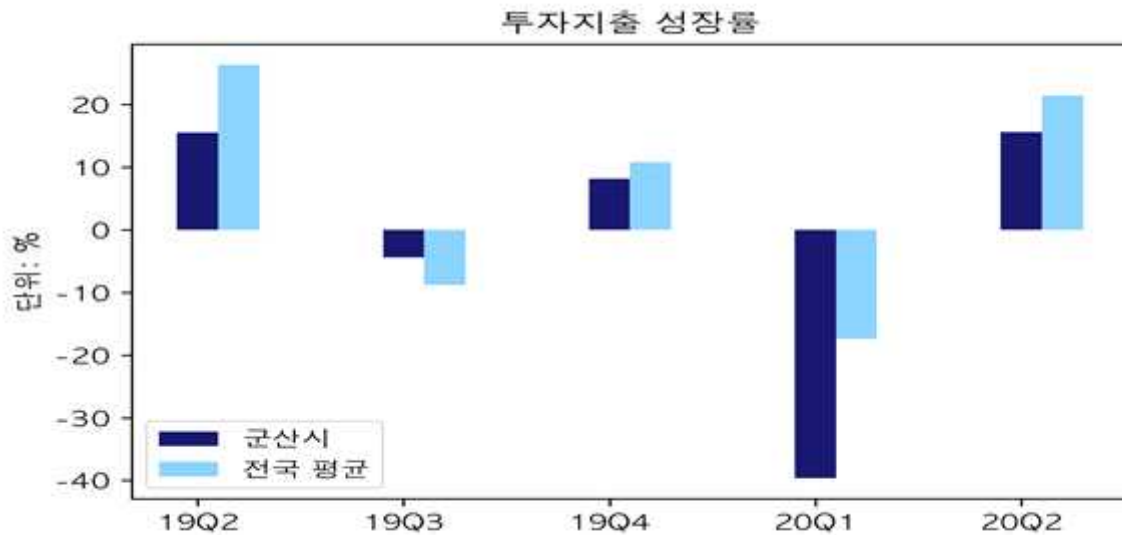
5. 투자지출 추이 (군산시, 전국 평균 비교 / 년)

○ 총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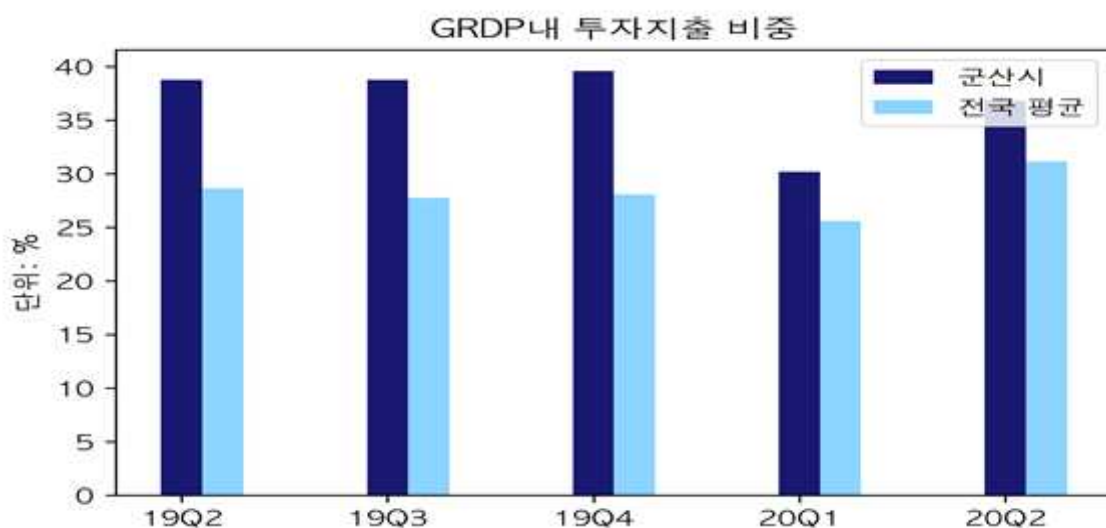
- 연간 민간투자지출 수준의 경우 군산이 전국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2020년 1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전국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남
- 군산시의 2020년 2분기 투자지출 총액은 5,997억원으로 해당 분기 전국 평균 투자지출 총액 4,991억원으로 전국 평균대비 1,006억원 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
- 군산시의 전년 동기 투자지출 총액은 8,311억원으로, 2020년 2분기 투자지출 총액이 약 2,314억원 감소하였음
- 군산시의 지난 1년간 분기별 투자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기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20년에 들어와서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률



- 2020년 2분기 군산시 평균 분기 투자지출 성장률은 15.6%로 해당 분기 전국 평균 투자지출 성장률 21.45%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적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선 것이 중점 사항임
- 또한, 전년 동기 투자지출 성장률 15.54% 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전국 평균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추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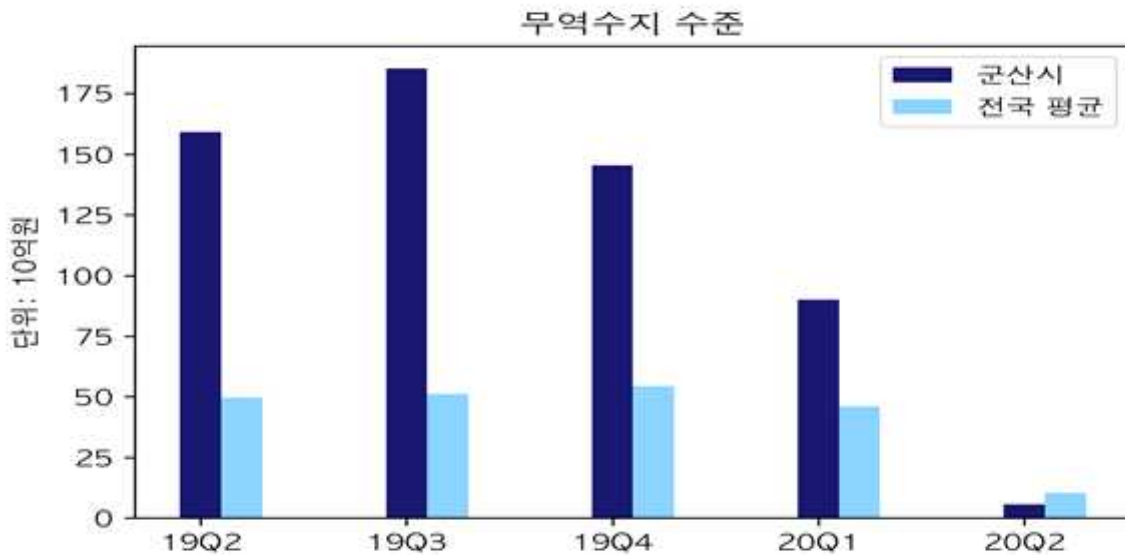
○ GRDP 내 투자지출 비중 추이



-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민간투자지출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군산시가 약 50%를 기록하고 있어 전국평균 30% 내외 대비 민간투자 비중이 지역 내 GRDP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다가 2분기에 들어서서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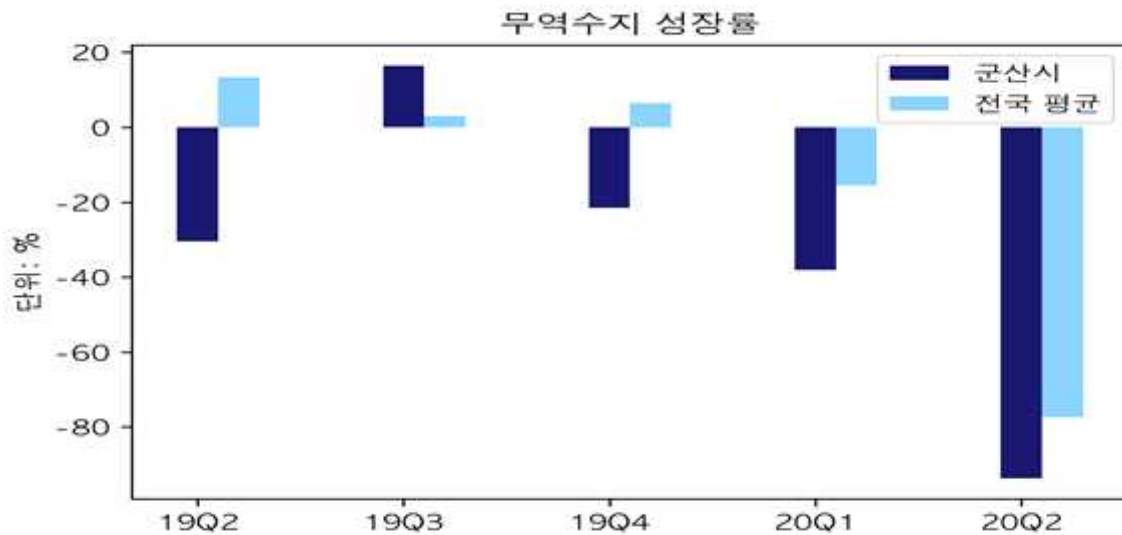
6. 무역수지 추이 (군산시, 전국 평균 비교 / 월, 분기)

○ 총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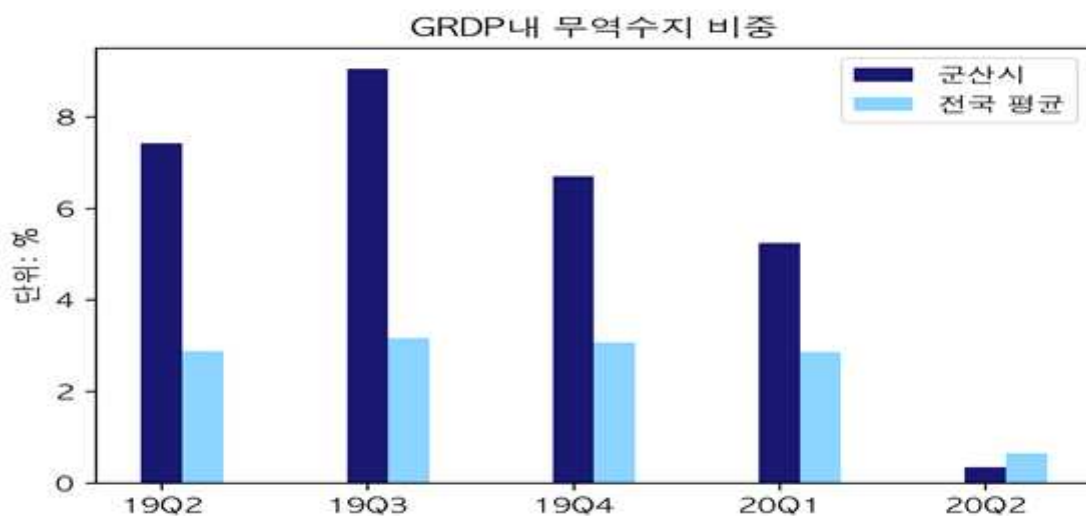
- 군산시의 2020년 2분기 무역수지 총액은 56억원으로 해당 분기 전국 평균 무역수지 총액 104억원 대비 47억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분기별로 살펴보면 군산의 무역수지 수준이 전국 시군구 평균 대비 2020년 1분기까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020년 2분기에 들어서며 전국 평균 하락 수준보다 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역전됨
- 전년 동기 무역수지 총액 1,592억원과 대비해보면 2020년 2분기 무역수지 총액이 무려 1,536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성장률



- 2020년 2분기 군산시 평균 분기 무역수지 성장률은 -93.73%로 해당 분기 전국 평균 성장률 -77.40%대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년간 무역수지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9년 3분기를 제외한 전 분기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2020년 2분기에 들어와서는 그 하락세 큰 폭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무역 성장률 30.45%와 대비했을 때 2020년 2분기 무역 성장률은 63.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GRDP 내 무역수지 비중 추이



- 무역수지가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전국평균과 비교했을 때 군산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년간 무역수지 비중을 살펴보면 군산시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2019년 3분기를 기점으로 군산시와 전국평균의 비중 차이가 감소하다가 2020년 2분기에 들어서 전국평균에 역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군산시의 기존 산업 부문이 축소되고, 이와 함께 민간투자지출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무역수지 하락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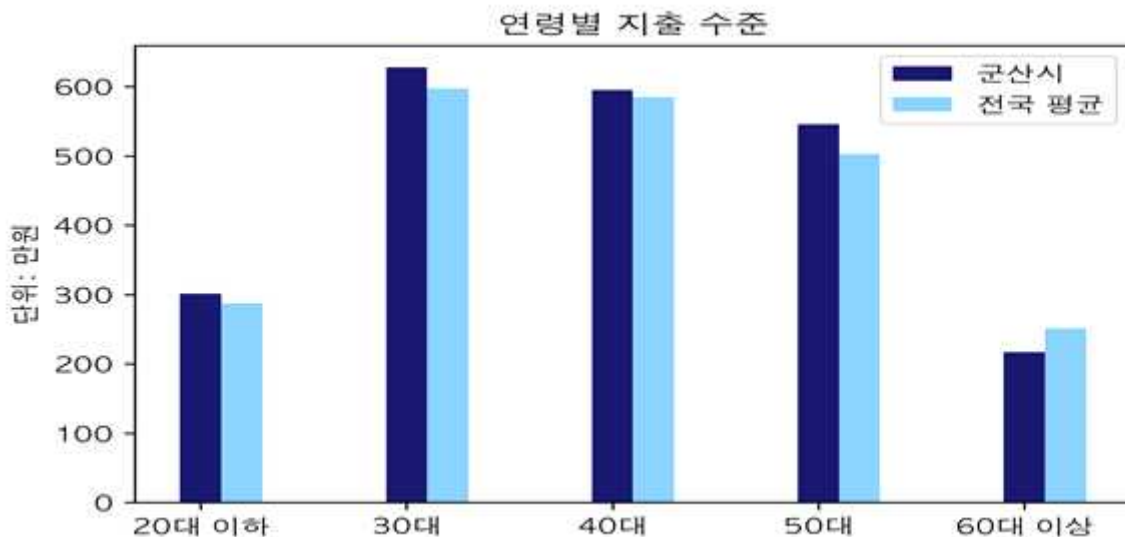
2부

정책부문별 현황 및 시사점

1. 일자리 부문

[주요 지표 분석]

□ 군산시 연령별 1인 지출(소비) 총액 수준



- 기본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증대 및 소득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분석을 위해 군산시 연령별 1인 지출(소비) 총액 수준을 측정하여 연계 지표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2020년 2분기 군산시의 분기당 20대 이하의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01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소비금액 287만원보다 약 14만원 높게 지출 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2분기 군산시의 분기당 30대 이하의 1인당 소비금액은 약 627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소비금액 597만원보다 약 30만원 높게 지출 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2분기 군산시의 분기당 40대 이하의 1인당 소비금액은 약 595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소비금액 585만원보다 약 10만원 높게 지출 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2분기 군산시의 분기당 50대 이하의 1인당 소비금액은 약 545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소비금액 502만원보다 약 42만원 높게 지출 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2분기 군산시의 분기당 60대 이상의 1인당 소비금액은 약 217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소비금액 250만원보다 약 33만원 적게 지출 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지출 총액 수준 통계를 살펴본 결과 10대 ~ 50대까지의 소득수준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어 지출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일자리 부족과 소득 수준 부족으로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추정됨

[주요 추진현황]

□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 추진

-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노사관계 재정립과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확대를 도모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
-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해 명신, 에디스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5곳, 군산대 등 22개 기관들을 중심으로 2019년 10월부터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실무 작업 추진을 통해 기존 4,122억원에서 4,587억원으로 투자금 상승, 1,900명에서 1,951명으로 고용인원 증가가 창출 될 것으로 효과 기대
- “지자체와 노사간 타협으로 만들어낸 전국 최초의 모델” 로 2020년 하반기 상생형일자리 공모 사업(군산시->산자부)을 통해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기틀 마련 예상

□ 군산 청년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청년층을 위한 취·창업, 복지·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준비 지원 및 취업 의욕 고취, 창업을 통한 청년 성장의 발판을 위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전북도와의 협력사업, 군산시 자체 주도 사업 등의 다양한 청년 일자리 중심 사업 추진
-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해 2019년 9월 창업지원의 플랫폼인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월에는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해 ‘창업희망 키움사업’, ‘청년창업가 주거지원사업 군산 STAY’, ‘초기창업패키지’,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 청년창업가들의 수제창작 특화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수제창작 플랫폼 설치·운영(2019년 8월/ 870백만원)’ 맞춤형 사업 일환으로 7개의 개별공간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체험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코워킹룸, 공용사무실 시설을 갖춘 ‘군산메이드마켓’ 를 시작으로 청년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매장 공간 지원과 함께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 또한 입주청년을 중심으로 관광상품 공동연구와 마을장터 운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 창업의 시금석이 되고 나아가 군산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계기 마련
- 유망 초기창업자에게 자금,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초기창업자의 기술 혁신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에 만 19세~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희망키움 지원사업 (160백만원/ 시비100%)” 을 시행하여 청년창업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육성 방안의 기틀을 마련

- 창업 육성과 더불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3개 유형, 8개 사업, 176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인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군산시 거주 관내 대학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군산시 본청 및 사업소 배치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과 2020년 1월, 7월(방학기간) 200여명의 관내 대학생의 공공행정업무 체험을 하는 대학생 행정 체험 캠프 추진

□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 개발·제공 사업 추진

- 최근 지역 산업의 침체에 따른 관련 기업의 부도 및 폐업에 의해 고급기술 인력이 타 지역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고급기술 인력 유출 방지와 보유한 고급기술 활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전문컨설턴트 재도약 사업” 추진
 - 2020년부터 조선·자동차업 퇴직한 고급기술 인력을 기업 애로해결 전문컨설턴트로 채용하여 지역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업무 시행
 - 퇴직자, 지역대학, 군산시의 역할 분담을 통해 퇴직자의 재도약 기회 마련, 고급기술 인력의 타 지역 유출 방지,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2020년 1 ~ 12월까지 총 1,638.1백만원의 사업비(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하여 (예비)사회적기업 25개소, 마을기업 5개소 등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 기틀 마련

- 사회적·마을기업 연차적 확대 및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정책방향 시사점]

- 군산 산업단지 기업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연계한 디지털 일자리 사업 추진
 - 군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A.I/XR/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된 지역 기업의 니즈 확대 추진
 - 군산시 소재 대학교, 직업훈련원 등을 통해 군산 산업단지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등 초급 및 중급 분야의 직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교육 이수 후 군산 산업단지 기업들의 자체 채용을 통해 일자리 공급 확대 도모
- 군산형 디지털 일자리 사업 구체화 방안 제언
 - 사업 개요:

군산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장의 스마트공장 전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군산시청과 해당 기업(군), 군산 소재 대학교, 유관 민간 기업(기술, 컨설팅 등)이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 공모 추진
 - 추진 내용:

중앙부처: 사업주관기관, 국비 지원(총 사업비의 60%)

제조기업(수요기업): 군산 소재 공장의 스마트화/디지털화에 투자(매칭 방식) 및 지역 인재 채용(최소 6개월~12개월)

지역대학: 제조공장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직무(직업)교육 개설 및 운영(3DMAX/CAD, VR/XR, 데이터가공/분석 등)

민간기업(공급기업): S/W기업(개발 납품), 컨설팅/교육(디지털전환 컨설팅, 교육기획, 강사 파견)

군산시청: 사업총괄관리 및 일자리 성과 확산, 국비 지원액의 40% 시비 매칭 지원

○ 기대효과:

- 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기술 기반 수출 경쟁력 확보 등)
- 지역대학의 디지털 전문인력 배양 및 지역 인재 중심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역 인재 중심의 직무교육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중심의 공급기업 선발을 통해 중소기업 간접 지원

2. 산업혁신 부문

[주요 추진현황]

□ 에너지융합 클러스터 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추진

- 역량 있는 기업의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 GM대우 및 현대중공업 조선소 등 대기업의 군산 공장 폐쇄로 인한 유출에 대한 대비 방안과 지역 산업 활성화, 정부 산업기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에너지융합 클러스터 산단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

- 20개 기업, 1,000여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지능형 기계부품, 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군을 중심의 기업유치를 추진 중으로 ‘기업유치 투자 협약(MOU)체결 31개사(1조 744억원, 3883명)’, ‘입주계약착공 등 투자 진행 14개사(명신, 해원엠에스씨 등)*’ 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 지속적으로 추진

*전기자동차 분야: 9개 기업(명신, 에스앤케이모터스, 에디슨모터스 등)

*재생에너지 분야: 3개 기업(테크윈에너지, 미래이앤아이, 쏠에코 등)

*금속, 소재 등 기타: 19개 기업(해원엠에스씨, 다스코, 삼양이노캠 등)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국비 7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공동활용 장비 및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장비 5종 구축과 기업체의 시금형(제품) 개발지원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의 다변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확대 등으로 사업의 다각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고용유지 등 인력 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산·학·연·관 협력사업 및 유망 강소기업 육성·지원

- 기업과 대학을 연계, 현장중심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과 효율적 산학연관 상호협력 및 교류로 기업 애로 해결 및 기술력 강화 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가 공모사업 지원·선정으로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 추진
 -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TP, 전북 새만금산학융합원을 주관 기관으로 8개 사업, 555백만 원 사업비 기반의 지원 사업 추진
 - 지역특성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 참여 지자체: 전북도,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지자체: 전북도,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 지역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의 기반 마련
 - 2020년 1 ~ 12월의 기간 동안 사업비 510백만 원을 기반으로 유망 강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
 - 군산시 내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활동, 판로지원, 경영 및 품질혁신 등을 지원하여 기업 자립도 향상과 매출 증대,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 기반 마련 추진

□ 2020년 신규 미래 유망산업 추진 방안 마련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유지보수교육, 안전기술교육, 자격인증 및 부품인증기관 등 종합적인 해상풍력 지원센터를 2020년~2024년에 새만금 산단 2공구에 설립 추진되며 사업비는 370억 원
- 가변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 트럭 운영시스템 개발
 - 미래 모빌리티로서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220억 원 예상

○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 자율군집주행 실증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 자율군집주행 운영·관리 관제센터 및 장비구축, 자율군집주행 실증 지원시설로 2021년까지 새만금방조제 하부도로에 조성되며 사업비는 200억 원 소요 예상

○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 상용차 산업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시장진입 촉진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4년까지 새만금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비는 1,621.35억 원 소요 예상

○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

- 4차산업 부응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 지원으로 수출 품목 다각화를 이루어 수출 경쟁력 강화 마련
- 산업 다각화 유도 및 국내 건설기계산업 거점도시로의 성장 도모를 위해 2022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내 조성되며 사업비는 199억 원 소요 예상

○ 컨테이너형태 모듈화 스크리버시스템 개발

-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기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한 선박 수리조선 특화단지를 구축하여 조선산업 다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개발 추진
- 일반 스크리버 설치 시 평균 30일 이상의 수리기간을 컨테이너 형태로 모듈화하여 15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선박수리조선 특화단지 구축을 통한 조선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

- 조선산업 위기 대응을 통한 신(新) 조선 특화분야인 “중소형 선박 기술” 및 기자재 품질 고도화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 대기업 하청 위주의 조선 생태계를 중소형 선박분야로 사업 다각화 유도과 Module Test System 구축으로 중소형 선박 기자재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건립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사업 추진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조성을 위한 부품기업의 미래형 자동차로의 업종 전환 및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평가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장비) 등 선도사업 과 기업 육성 추진
- 안전성 향상 등 중대형 상용차 부품의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과 상용차부품의 국제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지원으로 부품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새만금 주행시험장 일원에 사업비 153억 원을 투입하여 장비구축 및 시설 보완 지속 추진
- 상용·특장차 제작기업과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교우위 분야 발굴 및 수출 품목 집중 육성을 통해 관련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및 매출 상승효과를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6건), 장비 구축(5종), 특장부품시험동 건물신축 사업 지속 추진

○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추진

- 4차산업시대 중점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는 전기동력자동차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전기전장부품 솔루션 등의 기술 경쟁력 확보 목표로 추진

- 환경친화적 전기동력자동차 산업구조 구축을 통한 기업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친환경 전기동력자동차 선도기술 (Advanced Technology)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증대 및 글로벌 환경규제 선도적 대응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군산시 일원 및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장비구축 및 구축장비 활용 전장부품기업 기술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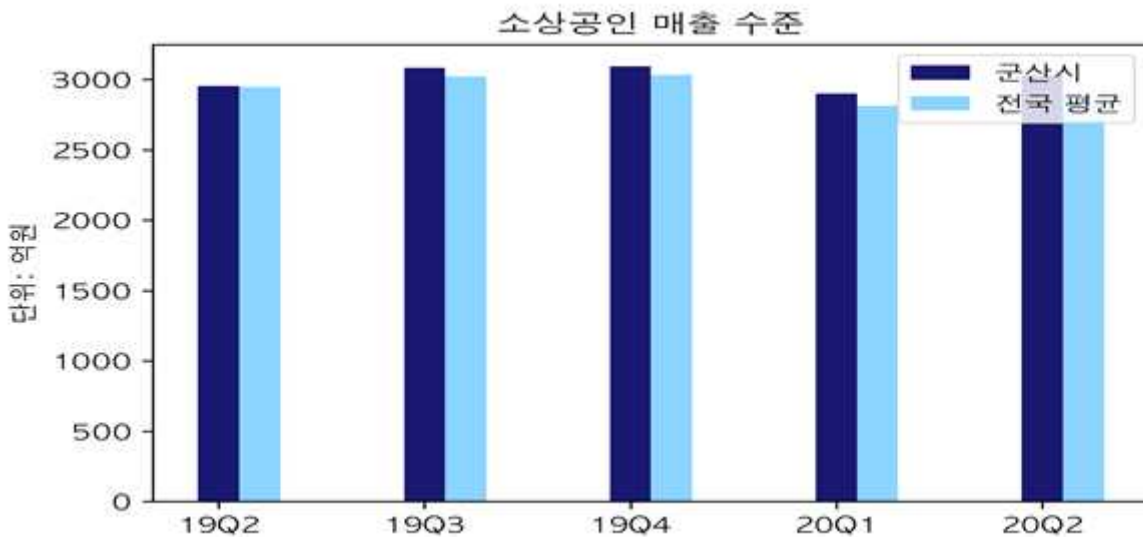
[정책방향 시사점]

- 군산 산업단지 기업 디지털전환 등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추진 필요
 - A.I/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을 통해 군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지원 사업 추진 필요
 - 디지털 직무 훈련 제공, 전문인력 공급, R&D 지원까지 연계한 디지털 전환 사업 지원 추진
 - 군산형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 공모 추진 필요
 - 군산 소재 제조공장의 스마트공장 전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공모 추진 필요(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
 - 지역대학교와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 추진(제조공장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직무(직업)교육 개설 업무 협력 추진 등)
 - 지역대학의 디지털 전문인력 공급을 통해 지역 소재 제조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생태계 구축 도모

3. 소상공인 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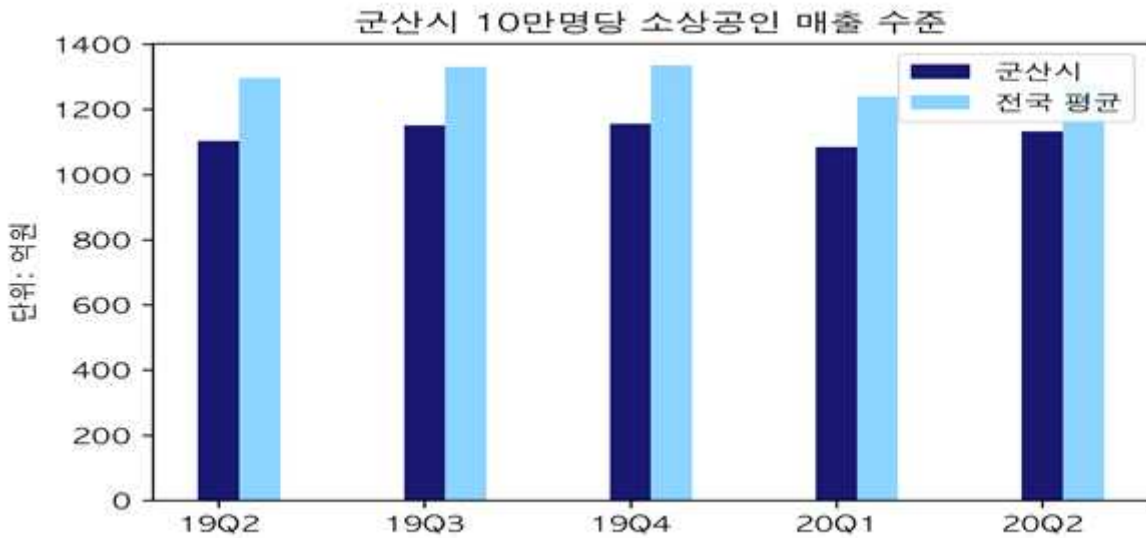
[주요 지표 분석]

□ 군산시 소상공인 매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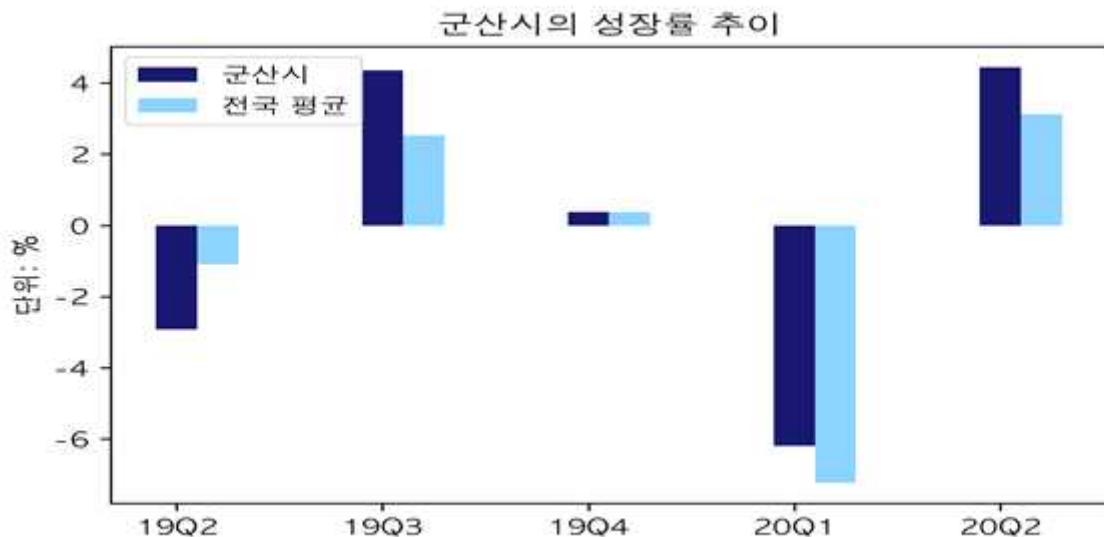
- 군산시의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방안 제시를 위한 소상공인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 소상공인 분야 매출은 3,031억원으로 집계됨
- 해당분기 전국 평균 소상공인 분야 매출은 2,903억 원으로 군산시가 전국 평균 대비 127억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군산시의 매출은 2,954억원으로 전년 대비 올해의 매출이 77억원 증가되었음

○ 10만명당 매출 수준



- 2020년 2분기 군산시의 10만명당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1,133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0만명당 소상공인 매출액은 1,277억원으로 144억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성장률



- 2020년 2분기 군산시의 소상공인 매출 성장률은 4.44%로 해당분기 전국 평균 소상공인 분야 성장률 3.13%에 비해 1.31%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전년 동기 성장률 -2.92% 대비 7.36%가 증가한 것임

[주요 추진현황]

□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10%로 특별 할인 판매
- 기존 할인비율이 8%에서 10%로 늘어나고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9월부터 도입되었으며, 15개월 동안 총 4,910억 원을 발행함. 판매 실적은 발행 첫 달 135억 원에서 올해 1월 371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가맹점은 1만 98개소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수준임

□ 군산사랑 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

-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영세소상공인들의 운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군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는 공공 배달앱 시행
- 3월 13일 정식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4월 기준 군산시 요식업체 1,200곳 중 761 곳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으며, 서비스 시작 첫날 5,138명에서 4월에는 8만 2,618명으로 증가
-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물간안정을 피하여 안정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 모바일 쇼핑환경을 구축하여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 및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급변하는 유통환경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추진 계획

□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통한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 자생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기반구축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 전담운영과 체계적·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지역 상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 마케팅,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화 기여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설시장, 신영시장, 중앙상가’ 권역 중심으로 사업비 8,000백만 원 투입하여 조성

-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군산시 역전시장 일원의 98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비 2,000백만 원 투입하여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조성

-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군산시 전통시장 4개소(명산, 신영, 대야, 주공) 189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비 4,80백만 원 투입하여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 지역상권 경영여건 개선 및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 추진

○ 30년 이상 지속적인 전통사업을 영위한 가업승계자를 대상으로 지역상권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지속경영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 추진

-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전통명가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 컨설팅, 홍보·마케팅을 지원

○ 지역 문화체험과 쇼핑, 관광이 어우러진 전통시장 육성, 재해예방 사업 등 경영혁신 사업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매출 및 고객증대를 도모

- 2020년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 655백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 등을 추진

□ 소상공인 지원 강화 추진

-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군산시에서 재원을 출연해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 대출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완화함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
 - 코로나19 등 가중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확대
 - 연매출액 1억2000만 원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던 카드수수료를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월 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에게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정도)

[정책방향 시사점]

□ 군산사랑상품권 등 현 정책 유지 강화 필요

- 군산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인구 10만명당 매출액)은 2020년 2분기에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양상을 보임

- 이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군산사랑상품권 등 군산시의 재정지원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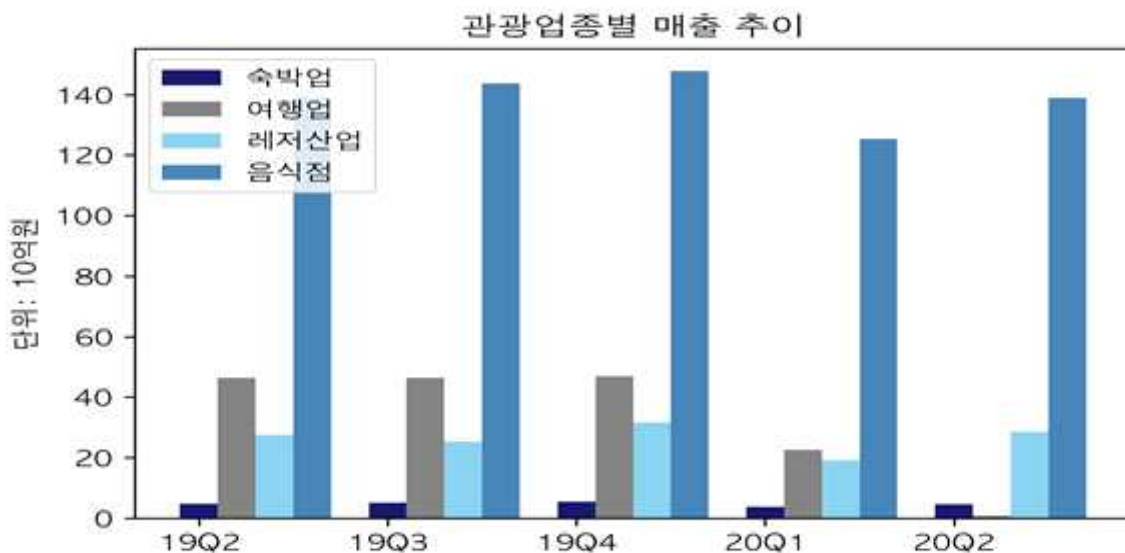
□ 지역 유망 매출 소상공인 업종 분석 서비스 제공

- 현재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재정 투입 효과에 따른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 존재
- 이에 개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추진이 필요하며, 군산시가 창업/전업 등 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군산시 GRDP 경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 매출 추이를 제공함으로써 유망 업종 현황 제공 및 업종 쏠림 현상 등 사전 예방 필요
- 향후 지역 상권별/업종별로 고도화된 분석 제공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추진

4. 관광 활성화 부문

[주요 지표 분석]

□ 군산시 관광업종별 매출 추이



- 군산시의 지역경제 및 관광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 분석을 위해 군산시 관광업종별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 숙박업 분야 매출은 46억 원으로 집계됨
- 이는 2019년 2분기 48억 원 대비 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군산시의 2020년 2분기 여행업 분야 매출은 9억 원으로 집계됨
- 이는 2019년 2분기 465억 원 대비 456억 원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남
- 군산시의 2020년 2분기 레저산업 분야 매출은 285억 원으로 집계됨
- 이는 2019년 2분기 276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군산시의 2020년 2분기 음식업 분야 매출은 1,389억 원으로 집계됨
- 이는 2019년 2분기 1,390억 원 대비 1억 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추진현황]

□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 완료 및 선정을 위한 지속 대응

- 현재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 준비를 완료하여 신청 완료

*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간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대 200억원을(국비50% 지방비50%)지원하여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 함

- 2020년 11월중 예비문화도시 승인을 받으면 1년간의 예비사업을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되며, 이를 위해 지역 문화 발굴을 비롯해 지역 이야기 발굴사업, 문화도시 네트워크 형성 등을 구축하고 지역주민화합 및 지역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계획

□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및 시민 중심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 문화예술 콘텐츠 인프라 구축, 창작공간 조성,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 군산 예술·콘텐츠스테이션,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 근대마을 (말랭이마을)운영,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문화예술 콘텐츠 창업·창작 지원, 입주 공간 제공
- 역사문화 공간 재 조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 내항 일원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수, 역사 문화 공간 재 조성
 - 전통문화 행사 재현을 통한 향토문화유산 계승
-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속 문화예술 활성화
 -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으로 시민 욕구 충족 및 예술문화 진흥 도모
-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및 국외 마케팅 확대 전개
 - 근대 개항 및 선교역사 재조명, 주요관광지 포토존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외 마케팅 확대 전개(중국 연태, 석도 등)
- 대표축제 위상 강화 및 시민참여형 작은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시간여행축제 성과 확대 발전, 전국단위 대표축제로 승화
 - 시민주도 참여형 작은축제 발전 지원 강화
- 해양관광 인프라 개선 확대를 통한 체류형 관광여건 조성
 - 해상인도교(장자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추진
 - 선유도 공중하강체험시설, 청암산 오토캠핑장, 선유3구 어촌체험장 운영
- 테마별 녹지공간 조성 확대를 통한 관광객, 시민 만족도 제고

- 은파관광지 내 구간별, 계절별 수목, 초화류 식재 확대
- 도심형 친수공간(은파, 금강호, 청암산) 생태체험 강화
- 짬뽕, 수제 맥주 등 대표 먹거리 관광 상품화 강화 사업 추진
 - 짬뽕 특화거리 조성 및 짬뽕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먹거리 관광 활성화
 - 수제 맥주 영업장을 중심으로 볼거리·먹거리 연계 관광 브랜드 구축
 - 군산만의 대표음식점(맛집·모범음식점 등) 및 특화음식 발굴·육성 등
- 근대문화유산과 연계된 문화클러스터 조성과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 해망골, 폐철도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문화인프라 구축 및 야간 볼거리 콘텐츠(청년관장, 동백대교램프, 해망골 등 야간경관조명사업) 확충 사업 추진
- 역사와 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 역사문화자원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및 문화재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특화된 명품 문화관광도시 조성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등록문화재 제719호)을 조성하여 항만경관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로 문화재형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 도시 육성
 - 문화유산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 및 문화관광 명소화하여 테마가 있는 공연 및 체험을 통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 상생문화재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군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거점 마련

[정책방향 시사점]

□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여행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군산의 관광산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숙박업, 여행업, 레저산업, 음식점 등 대표적 관광산업 관련 업종을 선정하여 월별추이 확인
- 레저, 음식, 숙박 등 타 관광 산업 분야의 경우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행업의 경우 침체 지속
- 군산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 필요

- 당일 관광 등 수요를 단기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 필요

□ 짬뽕, 수제 맥주 등 대표 먹거리 상권, 맛집 등 중심의 관광객 유치 전략 강화

- 5월 이후 음식점 분야의 매출 회복세가 매우 높은 회복력을 보이며 관광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한 숙박, 여행상품, 레저용품 등의 관광산업 연계 마케팅 지원 추진 필요

1. 분석방법: GRDP 기초개념 및 활용

-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통상적으로 국가단위 경제지표로 널리 쓰이는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총생산량을 측정하는 통계자료임
 - GDP의 추계에는 지출계정, 생산계정, 분배계정 등 세 가지의 측정방법이 존재하며 이론적으로 세 가지 추계방법 각각의 합은 모두 같아야 함 (삼면등가의 법칙)
-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역경제에 대한 계획, 정책의 수립 및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나 지자체별 경제변수의 통계작성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GRDP 등의 지역경제 관련 통계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혁신전략 등 주요 국정과제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GRDP 등의 통계자료를 통한 지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강인재외, 2007)
- 하지만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 GRDP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기준시점과 공표시점 간의 차이가 약 2년으로 시의성이 떨어져 활용가치가 낮음
 - GRDP 추산에 필요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계가 충분하지 않으며 일관된 체계에 의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짐
 - 생산계정의 측면에서만 작성되고 있어 완결성 및 활용도가 떨어짐
 - 앞서 언급하였듯 이론적으로 GDP와 GRDP 모두 지출계정, 생산계정, 분배계정의 결과값이 서로 동일해야 하나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대기업이 특정 산업의 생산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일부지역에만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생산계정 방식의 추계는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김정완 2006, 임성일 2013, 김을식 외 2015, 김재훈 2017 등)

- 이러한 경우 지출계정 추계방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음 (예: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경우 전기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주요 수원이라는 특정지역에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짐으로 생산계정으로 수원의 GRDP를 추계할 경우 과다추정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으나 지출계정으로 추계할 경우 수원 지역의 실제 최종소비만을 추계함으로써 생산계정 추계방식에 비하여 정확성이 높음)

〈표 1-1〉 GDP 및 GRDP 통계작성 현황

구분	지역내총생산(GRDP)	국내총생산(GDP)	시군구GRDP
작성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광역자치단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작성범위 및 대상	16개 시도 단위 생산, 지출 및 분배계정	전국 단위 생산, 지출 및 분배계정	시군구단위 생산계정
작성주기	연간	분기 및 연간	연간
공표일정	대상연도 종료 후 +12개월	(분기) 대상분기 종료 후 +28일 (연간) 대상연도 종료 후 +3개월	대상연도 종료 후 24개월
작성방법	지역단위의 연간 기초자료 (조사통계, 행정자료 및 주요 기관 결산서 등)를 이용하여 추계	(분기) 전국단위 월간, 분기 기초자료 및 자체 추정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연간) 분기 추계결과를 합산 하여 잠정 추계한 후 연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수정	통계청의 시도 GRDP 확정 추계 결과를 관련 배분지표 를 이용하여 시군구단위로 분할

※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통계청

2. 연구 목표

- 카드사 소비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출계정 GRDP를 추정함으로써 기존의 생산계정 GRDP의 정확도를 제고
- 시군 GRDP를 월별로 추계함으로써 즉시성 및 시의성을 제고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정책영향평가에 기여
- 전국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GRDP 추정에 적용가능한 일반화된 추정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간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향후 지역 간 경제수준 비교 등의 분석을 가능하게 함

3. 추정 방법

- 시군구 GRDP의 추정방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의 GDP 추계식을 아래와 같이 그대로 적용함

$$Y(R)_m = C(R)_m + I(R)_m + G(R)_m + NT(R)_m$$

- $C(R)$ 은 민간지출 총액, $I(R)$ 은 투자지출 총액, $G(R)$ 은 각 지방정부 지출 총액, $NT(R)$ 은 대외순수출입을 각각 의미하며 각 항목을 개별 추계 후 합산하여 GRDP 총액 $Y(R)$ 을 도출함

- 항목별 사용자료 및 출처

<표 1-2> 추계 항목별 사용자료 및 출처

적용 항목	데이터 명	작성 주기	포함내용	출처
민간 지출	BC카드 개인소비 데이터	월	사용자 성별, 나이, 거주지, 소비지역, 금액 등	BC카드
	신용카드 지급결제 통계	월	개인, 법인별,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일반구매 이용 실적 등	한국은행 지급결제통계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분기	국내총생산 구성요소별 총액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업투자 지출	설비투자계획조사	년	제조업, 비제조업 업종별 설비투자 계획 총액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지수	월	기계류, 운송장비업종 설비투자지수	통계청
	업종별 전력판매량	월	시군구별업종별 전력판매 총량	한국전력

정부지출	지방재정통계	월	시군구지자체별 예산현액, 월별지출액, 누적지출액, 집행률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대내외 이출입	시군구별수출입실적	월	시군구별수출입건수 및 수출입금액 (달러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민간지출 총액 $C(R)$ 추계방법 (BC카드 소비데이터 활용)

- 민간부문 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두 종류인 신용카드 소비와 현금성지출, 두 부문을 고려해야함.
- 신용카드소비의 경우 BC카드의 시장점유율, 즉 국가전체 신용카드 소비에서 BC카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소비 총액을 추계함
- 현금성지출의 경우 직접적인 데이터로 추적하기 어려움으로 위의 신용카드소비 총액을 이용하여 국가전체 민간소비의 신용카드소비 대 현금소비 비율을 구하여 이를 위의 신용카드소비 총액에 대입하여 현금성소비까지 고려한 민간부문 총 소비를 추계함
- 위 추계방법은 기본적으로 BC카드소비데이터를 기초로 삼고 있고 BC카드소비데이터는 데이터 내 사용자의 거주지, 사용지가 명시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시군구별 분할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위 BC카드 소비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거주지와 사용지가 다른 경우, 즉 여행, 또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재화와 서비스구매까지 추계함으로 지역 간 이출입까지 고려함

□ 기업투자지출 총액 $I(R)$ 추계방법

- 기업투자지출의 경우 추계에 주어진 기본데이터는 한국산업은행의 ‘전국설비투자계획조사’ 임
-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투자성향과 월별 투자성향, 두 가지 차원에서 데이터 가공을 거침
- 산업별 투자성향의 경우 전국설비투자계획조사데이터는 산업별 연간 총 투자액 자료만 공개함으로 이를 각 시군구별로 할당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의각 산업이 국가전체의 해당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 후 이 가중치를 반영하여 각 시군구의 산업별 투자 추정액을 구하여 각 시군구의모든 산업의 투자 추정액을 합산하여 추계함

- 설비투자지수에서 해당 연도의 설비투자지수 합계를 구한 후 각 월별 설비투자지수가 해당 연도 총 설비투자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이 가중치로 위의 시군구별연도 투자추정액을 월별로 할당함

○ 본 추계방법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투자경향과 기업의 크기를 고려하며, 또한 전반적인 기업의 월별 투자성향을 고려하고 있어 투자의 계절성을 반영함.

□ 지방정부지출 총액 $G(R)$ 추계방법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를 이용, 각 시군구별 정부지출 통계를 직접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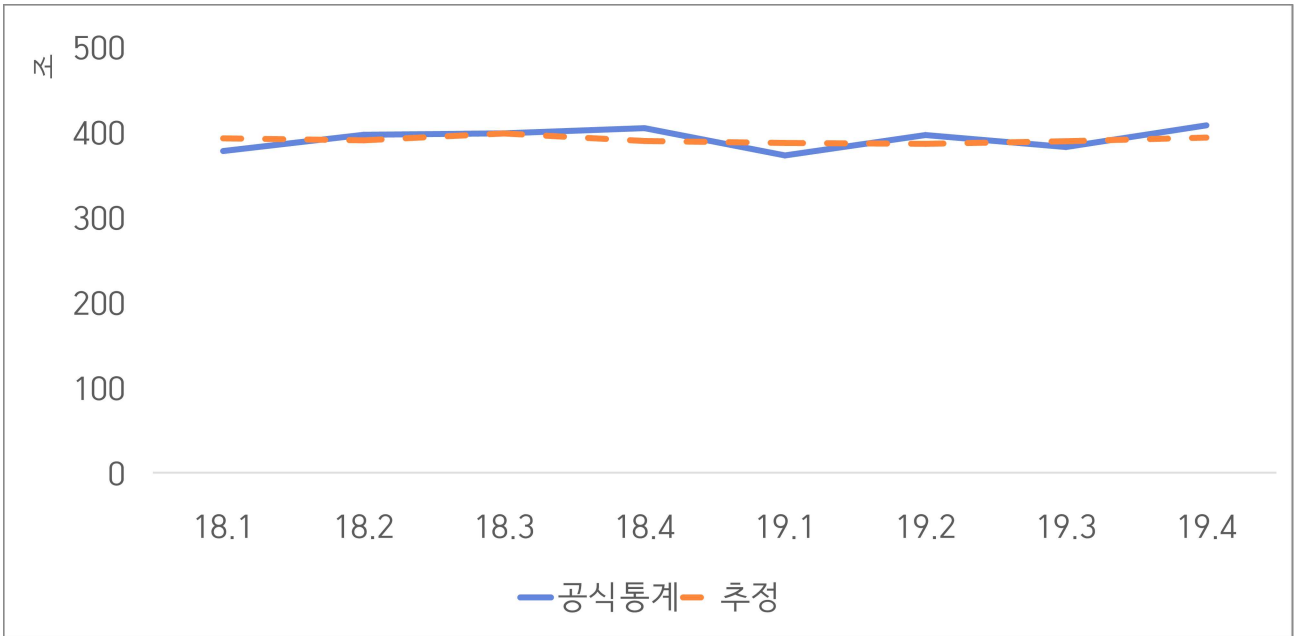
□ 대외순수출 총액 $NT(R)$ 추계방법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의 시군구별 자료와 해당 월의 한국은행 월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4. 기존자료와의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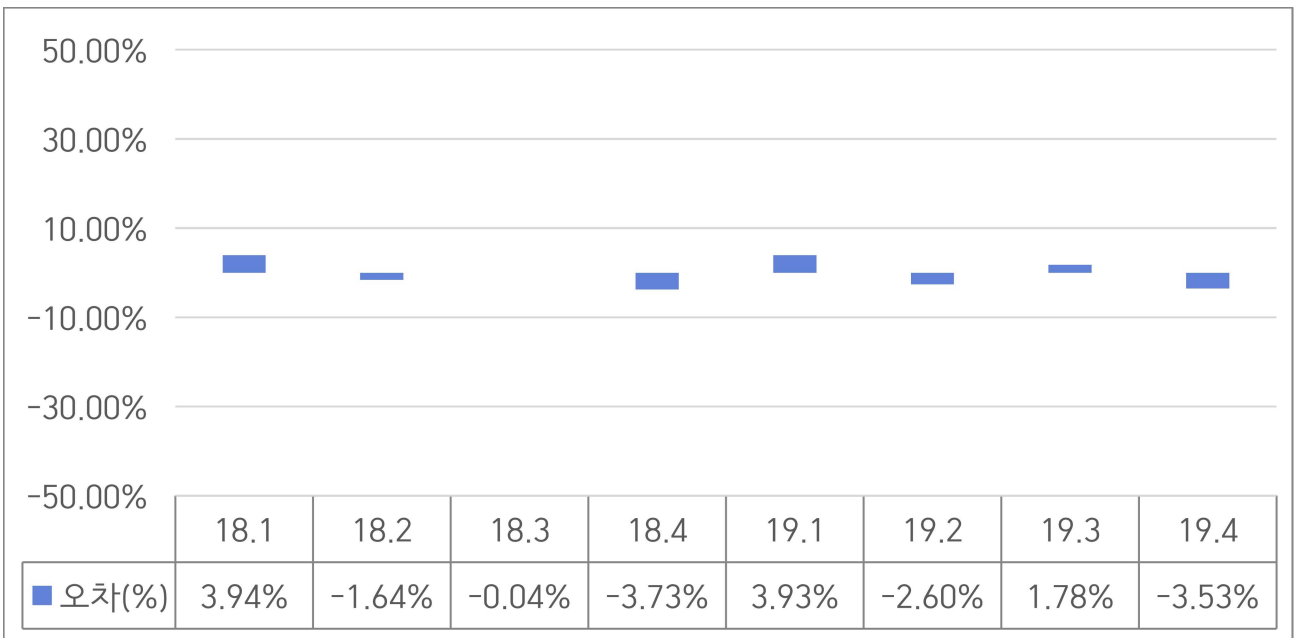
□ 앞선 방법론으로 추계된 월별, 시군구별 GRDP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통계청 및 한국은행의 분기별 GDP 공식 통계와 상호 비교함

<그림 1-1 공식통계 GDP와 추정GRDP 합계 비교>



※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두 통계 중 GDP의 정부지출 부문과 GRDP의 지방정부 지출 부문을 제외한 민간지출, 투자지출, 순수출입만을 비교함 (정부지출의 경우 GDP는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정부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GRDP의 경우 지방정부지출만을 합산함으로 통계 정의 상의 차이점이 존재함)

<그림 1-2> 공식통계와 추정 GRDP 간 분기별 오차



※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두 통계 중 GDP의 정부지출 부문과 GRDP의 지방정부 지출 부문을 제외한 민간지출, 투자지출, 순수출입만을 비교함 (정부지출의 경우 GDP는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정부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GRDP의 경우 지방정부지출만을 합산함으로 통계 정의 상의 차이점이 존재함)

5. 소상공인업종 분류

□ 소상공인 업종 구분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요 업종을 38개로 분류하여 업종별 매출 추이를 비교함

〈표 1-3〉 소상공인 주요 업종 분류(안)

1	택시	9	당구장	17	복지매점	25	컴퓨터	33	일식회집
2	골프 용품	10	노래방	18	양품점	26	세차장	34	중국음식
3	스포츠레저용품	11	골동품점	19	맞춤복점	27	약국	35	서양음식
4	피아노대리점	12	화랑	20	귀금속	28	산후조리원	36	제과점
5	골프연습장	13	일반가구	21	기념품점	29	이용원	37	정육점
6	볼링장	14	사진관	22	보습학원	30	미용원	38	세탁소
7	테니스장	15	편의점	23	독서실	31	안경점		
8	헬스클럽	16	슈퍼마켓	24	유학원	32	일반한식		

감사합니다.